

월요광장

일·학습 병행시스템이 성공하려면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개발연구실장

세계는 지금 청년실업과 전쟁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추산(2013년 4월)에 따르면 지역별 실업자는 2억 명을 약간 상회하는데, 그 가운데 청년층(15~24세)이 7340만 명(36.4%)이다. 청년 실업률(12.6%)은 전체 실업률(6.0%)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업자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최근 세계적인 종교지도자와 청년실업을 '심각한 범죄'라고 지칭하고 해결을 강조한 것처럼, 청년실업은 사회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2012년)도 청년층(15세~24세)의 실업률이 9.0%로 전체 실업률(3.

2%)과 비교하여 3배 가까이 높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유럽 연합(2012년)의 청년실업률(22.6%)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안심해도 될 수준처럼 보인다.

유럽의 국가별 실업률을 보면 그리스(54.2%), 스페인(52.4%), 이태리(34.4%)가 매우 높고, 프랑스(22.9%)와 영국(21.3%)도 높은 편이다. 특히 과도한 국가재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아, 경제위기가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층에게 가장 먼저 상처(scar)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오스트리아(8.7%), 독일(8.2%), 스위스(6.1%)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상당히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국가가 있다. 유럽에서는 보통 실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입사시험 준비자 등과 같이 숨겨진 청년실업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실업률이다.

세 나라의 청년실업률이 낮은 것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높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 스위스에서 대학 진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세 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낮은 편에 속한다.

대학 진학을 대신해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제도(apprenticeship)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교육은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실시하여 학교교육단계에서 산업현장의 일을 배우고, 일자리로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은 훈련실시에 따른 부담을 지지만, 우수한 족련인력을 쉽게 확보하는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학습 병행제도(dual system)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직업교육에서 기업의 참여로 내용을 기하고 일자리로 연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간단히 보이지만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근간이 바뀌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일보를 내딛는 것 같아 매우 든든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직업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일·학습 병행을 통하여 배운 직무 분야에서 평생 동안 근무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경제사회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은 해당 과정을 통하여 입사한 근로자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은퇴까지 전문성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는 해당 직무에서 부단한 능력개발로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되어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한다. 사회는 모든 직무분야 종사자를 그야말로 '귀천이 없어' 대우해야 한다.

문제는 기업주나 근로자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일·학습 병행제도는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직업별 전문성 제고를 통해 경제 구조의 복잡성 증대와 국제 경쟁의 파고를 헤치고, 청년실업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사상각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일·학습 병행제도가 튼튼하게 확립되고 근로자의 전문성이 보호되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날이 오길 기대한다.

법조칼럼



임주영
광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최근 한 공중파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다. 서로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한 가족이 된 4남매가 같은 국경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극중 4남매의 맏이인 남자 주인공은 약 10년 전, 새어머니의 아들인 동생이 동급생을 때려 숨지게 한 장면을 목격하고, 남동생을 대신해 살인범인임을 자처하며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복역했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 그 여인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면서 제2의 멋진

인생을 막 꿈꾸게 된다. 그러나 그가 살인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이 시작된다.

공교롭게도, 남자주인공이 대신 살인죄를 짊어졌던 남동생은 정의로운 검사가 됐고, 남자주인공과 그가 사랑하는 여인 사이를 질투하는 변호사가 악역으로 등장한다. 그 변호사는 검사인 남자주인공의 동생이 살인 전과자라는 사실을 만전하에 알리면서 남자주인공의 성공과 사랑을 방해하게 되는데, 필자는 쓴 입맛을 다시면서도 드라마에 몰입한 바 있다.

살인전과자라는 사실은 사사건건 남자주인공의 밭을 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기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동안, 그의 속칭 '빨간 줄'은 그가 공무원이 되지 못하게 막을 것이고, 사업에 취직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며, 국가유공자의 혜택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바꾸는 것도 힘들게 할 것이다.

약 200년 전 정벌장도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까지 바꾸고 시장이 됐지

만,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추락하지 않았던가.

일정한 지위와 혜택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으로서 전과(前科) 유무가 하나님의 자격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사회가 전과자에 대해 과장된 공포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듦다. 아마도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투영되는 범죄자가 대부분 흉악범인데도 모자와 마스크, 수갑 등이 정체 모를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전과자의 재범이 개인의 성향에 서 비롯된 경우도 간혹 있지만, 사회의 편향된 시선과 냉대, 가족의 외면, 법률의 부지, 빙곤, 제도의 미비로 인한 경우도 많다.

전과는, 벗어날 수 없는 글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아니고,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관심과 포용이 결합하면 재범의 우려와 함께 극복될 수 있는 대상이다. 전과자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선을 조금만 이동시켜보면, 전과자가 아닌 무색부명한 한 명의 각체로 보일 것이다. 그들은 필자가 매일 만나서 웃고 우는 사람들이다.

쉽지 않으나 묻는다. 무섭지 않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들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을 가진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과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도 형사 기록을 볼 때 범죄경력을 중요한 자료로 여기고 있고, 전과 자료를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을 유추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전과자의 재범이 개인의 성향에 서 비롯된 경우도 간혹 있지만, 사회의 편향된 시선과 냉대, 가족의 외면, 법률의 부지, 빙곤, 제도의 미비로 인한 경우도 많다.

전과는, 벗어날 수 없는 글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아니고,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관심과 포용이 결합하면 재범의 우려와 함께 극복될 수 있는 대상이다. 전과자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선을 조금만 이동시켜보면, 전과자가 아닌 무색부명한 한 명의 각체로 보일 것이다. 그들은 필자가 매일 만나서 웃고 우는 사람들이다.

기고

오늘 아침도 왜 학교에 가는가



김승
동명중 교장·전 광주서부교육장

오늘 아침도 여느 날과 같이 광주의 거리 거리에는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해와 같은 폭염에도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25만여 광주 학생들에게 '왜 학교에 가느냐?'고 물으면 한결같은 대답이 '공부하려 가요'라는 대답이다. 이를 부모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학생들과 거의 같은 대답을 한다.

그렇다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도 명확해진다. '학교는 공부를 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에 갈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학교는 공부를 잘하도록 해야 한다. 이 명제는 학교

의 최대 명제요 공교육의 명제다. 학교에서 해야 할 공부는 크게는 지·덕·체를 모두 포함한다. 지식과 인성, 건강한 신체를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공부가 풍성해야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공부 중에서 첫 번째 공부는 지혜를 쌓는 기초 공부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광주교육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광주시민들 중에는 그동안 쌓아온 '실력광주'가 무너졌다고 걱정하고 우려하며 큰 목소리로 공교육에 대한 질타를 가하기도 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감소에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걱정한다.

현 교육감이 취임하기 이전 광주교육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관리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대학입시 위주의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기조에서 학생들의 등교시간, 애학자율학습, 토요일과 공휴일의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가 일부 공부하고

깊은 학생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일각에서는 '실력광주'가 무너졌다고 걱정을 하자 광주시교육청은 각종 통계 등을 제시하며 자기 방어에 열심이다. 학생들의 학력관리가 학교에서 학부모 책임으로 옮겨가 사교육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말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현장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하다. 또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 그러면 서 시민들과 학부모가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부 잘 하는 '실력광주'를 회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학교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도와줘야 한다. 학교 시설들은 공적 세금으로 만들어졌다. 학교에 도서관·독서실 등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다. 학생들은 자기 학교의 시설에서 공부하는데 익숙해 있다. 그런데 토요일·일요일·밤 10시 이후 시간대에는 학교의 좋은 시설들을 텅텅 비어 있다.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사설 독서실이나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불안한 학부모는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

서라도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낸다. 공교육이 갑작히 못한 부분을 사교육으로 채우고, 부모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에 일어나고 있다.

학교 시설을 좀 더 과감하게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제공해야 한다. 학생 관리의 책임을 들먹이지만 학생 관리의 방법은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이제까지의 공부가 많은 학습 시간만을 투입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단위 시간 공부의 질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공부의 집중력을 높이고 단위 시간 공부 방법의 혁신적 변화와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공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있는 광주의 학교가 돼야 한다.

학교가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희망과 능력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실력광주'에 대한 우려가 끝나고 공부를 제일 잘하는 도시, 광주교육의 자부심을 기다린다. 오늘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도했다. 이런 건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 걱정스러웠다.

여학생들이고, 또한 사춘기이니 어른 흉내를 내고 싶거나 예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이해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는 캐릭터 상품 화장품은 그 품질이 의심스러워 걱정이고, 일찍부터 화장에 신경 쓰는 등 학생답지 못한 행동에 빠지다 보면 그것이 곧 아이들을 영뚱한 곳으로 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화장에 대해 문제의식을 심어주면 좋겠다.

▲오세리·광주시 동구 서석동

학생들 품질 검증 안된 화장품 사용 걱정된다

아이 방을 청소하다가 기겁을 했다. 유명한 회사의 제품이 다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명 회사들의 제품은 나름대로 엄격한 품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능이야 장단할 수 없어도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걸로 믿는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인 딸 아이의 책상서랍에서 발견된 화장품 종류들은 이루다 해야 할 수 없이 많았고 그 제조회사들도 도무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었다. 파우더, BB 크림, 틴트, 아이리너, 마스카라, 매니큐어 등이 가득 들어 있어 마치 이를 모를 회사들의 화장품 신제품 품평회를 연상시킨다.

아이 말을 들어보니 어떤 학생은 파우더를 빌려 얼굴이 뾰얗고, 어떤 학생은 액(液)을 빌려 쌩개풀을 만들고 아이리너까지 하고 다닌다고 했다. 틴트를 빌라 입술이 빨간 학생들도 여려 명 있다고 한다. 또 바쁜 등교시간에 30분씩 스キン, 로션 등 기초 화장품부터 BB크림, 파우더까지 바르다가 지각을 하기

社說

국정감사, 겉핥기·정쟁 등 구태 안된다

박근혜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되지만 초반부터 '겉핥기'와 '정쟁'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감기관이 유례없이 많은 데다 첨예한 정치쟁점이 수두룩한 상황에 치러지는 국감이어서 여야간 '싸움 판'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국감은 대상기관이 유례 없이 630곳이나 돼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보름 남짓한 시간에 충실히 이뤄질지 의문이다. 따라서 각 상임위는 한정된 시일에 효율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을 무더기 증인으로 채택해 과거의 폐해를 딛을 때는 각 상임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증으로 성과를 끌어야 한다. 국감은 정부의 잘 잘못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부처의 고유한 역할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각각 487건, 116건이었다고 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2010년 19건에서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폭행 2건, 폭언·욕설 213건, 교사 성희롱 3건, 수업진행 방해 175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0건으로 집계됐다.

폭언·욕설은 2010년 7건에서 2011년 112건, 2012년 213건으로 급증했고, 교사 성희롱도 2010년 0건에서 2011년 1건, 2012년 3건으로 증가했다. 전남 지역 역시 2010년 63건에서 2012년 116건으로 늘었다.

교권침해는 교원들의 교육력을 저하시켜 결국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광주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무관치 않다. 논의 시점인 2011년부터 교권침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권을 보장하는 일 역시 시급한 사안이다. 학교에서의 교권침해는 교원들의 교육력을 저하시켜 결국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권침해의 증가는